

#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및 강인성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ocial Support and Hardiness on Subjective Happiness

정은선\*, 이자영\*\*

한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Eun-Sun Jung(esjung@halla.ac.kr)\*, Ja-Young Lee(hycounselor@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1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15.0과 Amos 7.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부모 양육태도와 강인성을 그리고 강인성은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양육태도는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강인성을 통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으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부모 양육태도(부모 과보호, 부모 돌봄) | 사회적 지지 | 강인성 | 주관적 행복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hard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18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ses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SPSS 15.0 and Amos 7.0.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Social support confirmed mediating variable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hardiness, and hardiness confirmed mediating variable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That is, parenting attitudes had some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hardiness based on social support. Finally, the needs of development about the counseling and the education contents as a special intervention was discussed, and that contents were reflected social support and hardiness to be improved. Also,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subsequent further study were suggested in this research.

■ keyword : |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overprotection, caring) | Social Support | Hardiness | Subjective Happiness |

## 1. 서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 교육과 생활양식 면에서는 조사 국가 중에 최상위였던 점이나, 물질적

접수일자 : 2013년 06월 20일

수정일자 : 2013년 07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7월 22일

교신저자 : 이자영, e-mail : hycounselor@hanmail.net

행복과 보건 및 안전 영역도 평균보다 높았다는 보고는 앞선 결과와 더욱 대비를 이룬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공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저조한 행복지수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동 및 청소년은 아직 부모로부터 경제적·물질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2][3]. 부모 양육태도로서 돌봄 부족과 과보호는 임상적인 정신질환[4]이나 우울감과 관련 되었다[5][6].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관심과 지원의 형태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녀 입장에서 과도한 보호와 통제의 형태로 지각한다면 오히려 나약하고 의존적인 면을 기르고, 불안과 관련된 증상들을 야기하며[7][8], 독립적인 기능 수준을 해치는 등의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9][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완벽주의, 역기능적 태도와 자존감, 부모자녀 관계지향성[5][6] 등이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대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유용해 보인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후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지 여부는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와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초기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11]. 또한,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12], 정서적 적응, 정신건강, 신체적 건강, 성인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바[13],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시키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행복감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인성이 높은 집단은 사랑, 신뢰, 관심, 이해 등이 포함된 정서적 지지와 인격존중, 칭찬, 의사존중

등을 포함하는 평가적 지지가 유의하게 높았다[14]. 이는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 발달이 관련이 높다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의 발달을 독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초기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지지가 발달하고[11], 강인성이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였다면[2],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서 강인성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부모가 특정 형태의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이 어떤 과정을 통해 향상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특정 양육태도(예: 돌봄)를 보일 때 개인이 주관적 행복감을 누리기 위한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을 상정하고, 이 둘이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각각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관점을 확대하여 각 변인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거하여 세운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부모 양육태도(과보호, 돌봄), 사회적지지,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은 서로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 가설 2. 부모 양육태도(과보호, 돌봄)에서 사회적지지, 강인성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할 것이다.
- 가설 3. 부모 양육태도(과보호,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을 거쳐 가는 간접경로는 유의미할 것이다.

## II. 문헌고찰

### 1.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

과커 등[15]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돌봄과 과보호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돌봄은 따뜻함, 수용, 그리고 지각된 애정을 의미하여, 과보호는 사생활의 침입, 과잉 통제, 그리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일반인 집단과 일반화된 사회공포증 집단의 종단적인 비교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는 아동의 독립성 발달을 제한하고 아이가 사회적 환경에 덜 반응하게 함으로써 추후 사회적 상호작용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6]. 부모가 자녀에게 선의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지라도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자존감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된다면 실제적인 도움과는 별개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9]. 어머니의 돌봄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개념이 높고 정신건강과 부모자녀 애착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17], 돌봄이 부족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정신 병리와 우울, 대인관계 측면에는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돌봄 수준이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은 높은 반면, 우울감은 낮았고, 과보호 수준이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낮고, 우울감은 높았다[2]. 이처럼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들과는 달리 대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부모 양육태도와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돌봄, 존중을 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거나 의사소통 관계망 속에서 상호의무를 이행하는 사이라고 믿게 하는 정보들로 구성'된다고 하고[18], 이러한 정보

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부모, 친구, 교사 등의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태도를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고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았다[19].

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여[20],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능력의 향상보다는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며[12], 자신이 속한 주요 집단 성원들로부터 제공된 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21].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적응수준은 높았으며[22], 청소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3].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24], 사회적 지지는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구에서도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여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응답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5].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 양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단편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경우가 많았고,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사회적 지지가 부모 양육태도와 관계가 있고,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 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녀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에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강인성

강인성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하는 내적 자원으로[26], 강인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몰입(commitment)하려 하며, 자신의 경험을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스로 통제(control)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하나의 도전(challenge)으로 받아들여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강인성은 부모의 성격 및 양육태도와 자녀 성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강인성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27], 강인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많이 경험했지만 강인성이 낮은 집단은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간헐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14].

강인성은 주로 스트레스 장면에서 신체적 질병 및 건강,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국내 강인성 효과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28], 강인성의 연구를 건강 관련, 심리적 안녕감, 적응, 스트레스, 지지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 심리적 안녕감 범주가 강인성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변수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인성이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2]. 부모의 안정되고 지지적인 돌봄은 긍정적인 성격변인으로서 강인성을 높이고, 강인성이 높으면, 당면한 과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주관적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돌봄과 함께 강인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H 및 K 대학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140명(44%), 여학생은 178명(56%)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령범위는 19~29세였고, 평균 연령은 23.2세( $SD=2.19$ )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40명(12.6%), 2학년 58명(18.2%), 3학년 106명(33.3%), 4학년 114명(35.8%)으로 3학년과 4학년이 1학년이나 2학년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2.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는 PBI[15]를 번안하여 타당화 한 것으로 측정하였다[29]. 이 척도는 자녀가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태도에 대해 회상적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 요인으로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가 있으며, 총 25개 문항 중 돌봄은 총 12개 문항, 과보호는 총 13개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누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83, .81이었다.

##### 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19]. 이 척도는 원래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수가 총 9개로 많은 편이므로 변인 측정에 있어 추정오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30], 측정변인을 탐색적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해당 요인에 속하는 변수를 합해 하나의 지표로 만드는 항목합산(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31]. 그 결과 총 3개의 측정변인이 만들어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사회적 지지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2.3 강인성

강인성(The Hardiness Scale)은 바톤 등[32]이 제작한 것을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14]. 이 척도는 성격적 강인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타당화되지 않았으나 심리적 강인성을 측정하는 연구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주성분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으로 몰입(commitment), 통제(control), 도전(challeng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14]. 총 45문항으로 하위 요인 별로 15문항씩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강인성 총점으로 분석하였으며 강인성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2였다.

2.4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로튼[33]이 개발한 P.G.C. 사기 척도(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척도로서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자가 번역한 뒤, 번역한 문항을 심리학 전공 박사 3인이 검토 수정한 후 교차타당화 및 준거 타당화[34]를 하였으며, 이지연[35]이 대학생에 맞게 재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총 17개 문항이며, 문항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으로 대답하는 이분법적 응답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행복감 척도 역시 사회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항목합산(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개의 측정변인이 만들어졌다. 선행연구[35]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앞서 고찰한 문헌을 바탕으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함으로써 각각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관점을 확대하여 각 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고,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강인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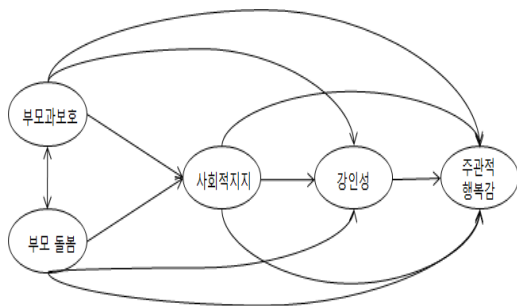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4.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5.0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 간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변인들의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돌봄, 과보호)와 사회적 지지, 강인성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결측치는 EM(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 즉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강인성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수(r)

변인	부모 양육태도		3.사회적 지지	4.강인성	5.주관적 행복감
	1.돌봄	2.과보호			
1	-				
2	-.48**	-			
3	.61**	-.29**	-		
4	.25**	-.34**	.24**	-	
5	.25**	-.23**	.18*	.45**	-

\* $p < .01$ , \*\* $p < .001$

[표 1]에서 보듯이 부모 양육태도 중 부모 돌봄은 사회적 지지, 강인성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사회적 지지  $r=.61$ ,  $p<.001$ ; 강인성  $r=.25$ ,  $p<.001$ ; 주관적 행복감  $r=.25$ ,  $p<.001$ ). 그러나 부모 양육태도 중 부모 과보호는 사회적 지지, 강인성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과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사회적 지지  $r=-.29$ ,  $p<.001$ ; 강인성  $r=-.34$ ,  $p<.001$ ; 주관적 행복감  $r=-.23$ ,  $p<.001$ ).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이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지지, 강인성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반면 과보호를 했다고 지각하는 것은 이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강인성과 주관적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인성 또한 주관적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이 얼마나 타당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하위요인이 없는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항목 합산(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항목합산이란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관측변수들을 부분적으로 총합해서 지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31].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하나의 잠재변수당 측정변수는 3-5개가 적당한 데, 주관적 행복감은 문항이 총 18개이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과대 추정되고 적합도가 낮아질 수 있다[36][37].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한 다음 해당 요인에 속하는 변수를 합해서 하나의 지표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 후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각각의 잠재변인별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문항을 일부 제거한 후 다시 전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38].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문항을 엄격하게 선별하고자 하거나 전체 측정변인의 수가 많을 경우에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문항을 선별하기 원하지 않거나 전체 측정변수가 적은 경우 잠재변인 전체의 측정모형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39][40].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2-4개), 전체 잠재요인의 측정변수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N=318, df=67)$ 는 117.470( $p<.001$ )으로 나

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hi^2$ 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41][42]. 적합도 지수에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와 간명성을 고려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CFI와 TLI를,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는 RMSEA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95이상, 절대적 적합도 지수는 .06미만이면 좋은 모델인 것으로[43], CFI와 TLI는 .90이상 그리고 RMSEA는 .08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형으로 간주되고 있다[44]. 이러한 근거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는 .962, TLI는 .948 그리고 RMSEA는 .049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설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인을 통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처음 가정했던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hi^2(N=318, df=67)$ 은 117.470( $p<.001$ ),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는 각각 .948, .962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49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인 CFI, TLI와 RMSEA 모두에서 좋은 모델로 알려진 수치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과보호와 강인성간의 관계 ( $\beta=-.064$ , n.s.), 돌봄과 강인성 ( $\beta=.02$ , n.s.) 등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과보호에서 사회적지지,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돌봄에서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 한 후 [그림 2]와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모델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 적합도 지수 TLI, CFI 각각 .977, .982였으며, RMSEA .033으로 좋은 모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 전 모델(최초 모델)과의 비교에서도 간명한 모델로 드러났다.

표 2. 적합도 지수와 모형비교

변인	$\chi^2$	df	TLI	CFI	RMSEA
수정전 모형	117.470	67	.948	.962	.049
수정(최종)모형	69.037	51	.977	.982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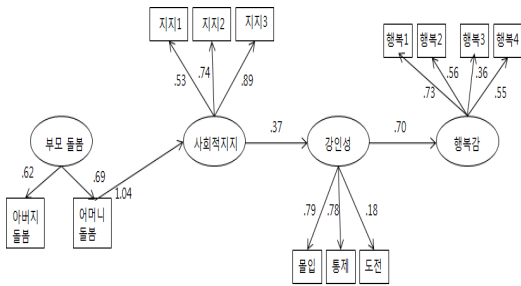


그림 2. 수정 모형

구체적으로 가설모형에서 부모 양육태도 중 돌봄이 사회적 지지, 강인성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변인들의 직, 간접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부모의 돌봄( $\beta=1.04, p<.001$ )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강인성( $\beta=.37, p<.05$ )에 그리고 강인성은 행복감( $\beta=.71, p<.01$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부모 양육태도의 돌봄과 강인성과의 관계(간접효과 .38,  $p<.01$ )를 매개하였으며, 강인성은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 .26,  $p<.01$ ).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부모 양육태도 중 돌봄과 강인성을 그리고 강인성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을 완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클라인[45]에 따르면, 경로계수의 절대값이 .10에서 .50사이이면 중간효과를 나타내므로 부모 양육태도 중 돌봄과 강인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그리고 강인성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의 간접효과는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설모형 모수의 추정치, 표준오차 및 검정통계량

측정변인간 경로계수	비표준화된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오차 (S.E)	검정통계량 (C.R)
돌봄→ 사회적 지지	1.06	1.04***	.15	7.03
사회적 지지→ 강인성	.08	.37*	.03	2.48
강인성→주관적 행복감	1.19	.71**	.44	2.72

\* $p<.05$ , \*\* $p<.01$ , \*\*\* $p<.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 강인성은 각각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 돌봄이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 강인성이 높은 반면 부모 과보호가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 강인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공감적이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대할수록 자녀는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함과 동시에 강인성이나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통제를 한다면, 자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그 결과 행복감 또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사랑과 열정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할지라도, 과보호처럼 자녀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 장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2][5][7][9][46]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사랑과 애정으로 지각하는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부모 양육태도 중 과보호가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을 통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있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 과보호에서 사회적 지지,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의 과보호와 주관적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강인성은 매개 변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2] 결과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강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지도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즉, 자녀가 행복하다고 인식하게 해주는 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돌봄이나, 과보호이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매개변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가 주관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독자적인 변인을 고려하고 이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 자녀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 중 돌봄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모양육태도 중 돌봄과 강인성과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강인성은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 건강 사이에서 강인성이 매개한다는 기존 연구[2]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인성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강인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부모 양육태도 자체가 정서적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녀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내적 자원을 강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가 충분히 지지받았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에 임하며, 변화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 도전하려는 강인성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 및 상담자가 부모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돌봄이 자녀의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 외에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는 과거의 영향이고 자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강인성은 현재 주어진 과제에 얼마나 몰입하고 도전하려 하는가, 스스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 하는 태도로서 개입이 가능한 개인내적 변인이다. 또한 사회적지지 역시 부모나 친구, 교사 등의 조력으로 개입 가능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적으로는 사회적지지, 내적으로는 강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 교육을 위한 콘텐츠 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의 경우 부모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도 스스로 극복하려는 시도나 상담 등의 전문적인 조력 등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변화에 큰 지지를 하는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동기와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심리적인 자원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당면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변화를 위한 도전 과제의 하나로 여기고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내담자를 공감하고 격려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강인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둔 상담자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내담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찾는 이유가 심리적 불편감을 줄임으로써[47],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고자 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내담자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행과제로서 내담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전하려는 자세를 격려하는 것이 강조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상담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내담자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실제 부모로부터 제공



된 돌봄과 과보호를 다각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현재 자녀의 입장에서 지각을 살펴본 것이므로 부모의 양육 태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모의 양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의 상호 관계를 함께 고려하고, 회상식 자기 보고뿐만 아니라 관찰, 종단적 연구 방식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소재의 대학생으로만 제한하여 이루어졌다. 부모 양육태도로서 돌봄과 과보호라는 차원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나 장애가 있어 주변의 보호가 필수적인 경우처럼 좀 더 폭넓은 대상과 연령대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 폭넓은 대상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도 보다 광범위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에 제한을 둔 것이었다.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과 아울러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이 물질적·정보적·정서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후연구에서는 정서적 측면 외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40]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타당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척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타당화 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1] <http://news.donga.com/3/all/20130504/54898670/1>  
 [2] 정은선, 조한익,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

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1호, pp.209-227, 2009

[3] 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행동 장애에서의 부모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제7권, 제1호, pp.34-43, 1996

[4] G. Overbeek, M. Have, W. Vollebergh, and R. Graaf, “Parental lack of care and overprotection: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DSM-III-R disord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42, No.2, pp.87-93, 2007.

[5] 오옥진,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6] 이은희, *지각된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완벽주의와 우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7] J. L. Hudson and R. M. Rapee,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nxiety disorders: An observation stud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Vol.39, No.12, pp.1411-1427, 2001.

[8] R. S. L. Mills and K. H. Rubin, “Are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both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childhoo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Canadian J of Behavior Sciences*, Vol.30, No.2, pp.132-136, 1998.

[9] G. N. Holmbeck, S. Z. Johnson, K. E. Wills, W. McKernon, B. Rose, S. Erklin, and T. Kemper, “Observed and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in preadolescents with a physical disability: The mediational role of behavioral autonomy,”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70, No.1, pp.96-110, 2002.

[10] M. Thomasgard and W. P. Metz, “Parental overprotection revisited,”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Vol.24, Issue.2, pp.67-80,

- 1999.
- [11] B. R. Sarason, G. R. Pierce, and I. G. Sarason, Social support: The sense of acceptance and the role of relationships. In B. R. Sarason, I. G. Sarason, & G. R. Pierce(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pp.97-128). NY: Wiley, 1990.
- [12] 전진순,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3] M. Reid, S. Landesman, R. Treder, and J. Jaccard, "My family and friends: Six to twelve-year-old children'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s," *Child Development*, Vol.60, No.4, pp.710-896, 1989.
- [14] 김후영, *심리적 강인성 발달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5] G. Parker, H. Tupling, and L. B. Brown,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 of Medical Psychology*, Vol.52, Issue.1, pp.1-10, 1979
- [16] C. T. Taylor and L. E. Ald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generalized social phobia," *Behavior Therapy*. Vol.37, Issue.1, pp.14-24, 2006.
- [17]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장정 신체검사용 정신과 집단선별검사 개발을 위한 연구(5)", *신경정신의학*, 제32권, 제6호, pp.896-903, 1993.
- [18]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pp.300-314, 1976.
- [19] P. W. Nolte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4.
- [20] 김연수,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21] 김혜숙, 한국인의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3권, 제1호, pp.41-60, 1997.
- [22] 김관희, 이경희,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권, 제2호, pp.145-165, 1997.
- [23] J. R. Asarnov and A. A. Horton, "Coping and stress in families of child psychiatric inpatients: Parents of children with depressive and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Vol.21, No.2, pp.145-157, 1990.
- [24] 박영호, 김정인,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의 역할", *교육이해와 실천*, 제10권, 제1호, pp.453-481, 2000.
- [25] J. A. Flaherty, and J. A. Richman, "Effects of childhood relationships on the adult's capacity to form social supports," *American J of Psychiatry*, Vol.143, No.7, pp.851-855, 1996.
- [26] S. C. Kobasa,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7, No.1, pp.1-11, 1979.
- [27] 유가호, 박선주, *부모의 성격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제1호, pp.101-116, 2004.
- [28] 김영옥, *국내 강인성 효과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 분석*, *성인간호학회지*, 제17권, 제5호, pp.783-792, 2005.
- [29] 송지영,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 (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제31권, 제5호, pp.979-991, 2005.
- [30] 박노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과 사회적 실재감에 관한 연구: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매개효

- 과 및 남녀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6권, 제3호, pp.51-78, 2008.
- [31] 배병렬,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2009.
- [32] P. Bartone, R. J. Ursano, K. M. Wright, and L. H. Ingraham, "The impact of a military air disaster on the health of assistance workers," *J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77, No.6, pp.317-328, 1989.
- [33] M. Lawton,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 of Gerontology*, Vol.30, Issue.1, pp.86-89, 1975.
- [34] 유경, 김지현, 강연옥, 이주일, "한국판 노인용 자기척도(PGCMs)의 타당화 연구", *한국노년학*, 제 32권, 제1호, pp.207-222, 2012.
- [35] 이지연, *사회적 지원이 개인 안녕과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36] R. P. Bagozzi and J. R. Edwards, "A General Approach to construct validation in organizational research: Application to the measurement of work valu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 Vol.1, No.1, pp.45-87, 1998.
- [37] D. L. Bandalos,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9, Issue.1, pp.78-102, 2002.
- [38] J. Anderson and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3, No.3, pp.411-423, 1998.
- [39] 이수립, 조성호,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1호, pp.71-94, 2010.
- [40] 이학식, 임지훈,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법문사, 2007.
- [41] F. F. Chen,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ic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14, Issue.3, pp.464-504, 2007.
- [42] G. W. Cheung and R. B. Rensvold,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9, No.2, pp.233-255, 2002.
- [43] L. T. Hu and P. Bentler,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76-99), London, UK: Sage, 1995
- [44] R. Macallum, K. Widaman, K. Preacher, and H. Sehee,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The role of model erro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36, Issue.4, pp.611-637, 2001.
- [45]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8
- [46] 윤소연,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성격 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47] A. Cepeda-Benito and P. Short,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5, No.1, pp.58-64, 1998.

#### 저자소개

정은선(Eun-Sun Jung)

정희원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2년 8월 ~ 현재 : 한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관심분야> : 상담자교육, 영성, 삶의 의미, 강인성

이 자 영(Ja-Young Lee)

정회원



- 2010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박사)
- 2011년 1월 ~ 현재 : 서울사이  
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군경상담, 청소년상담, 위기상담